

## 【P3-20】

## 복분자와 백출 메탄올추출물이 생쥐의 혈장과 간조직의 지질에 미치는 영향

허보영\*, 성혜영, 최영선, 조성희<sup>1</sup>, 최상원<sup>1</sup>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, <sup>1</sup>대구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

복분자는(*Rubus coreanus* Miq.)는 민간과 한방에서 impotence, 유정, 유뇨 및 빈뇨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며, 백출(*Atracylodes japonica*)은 민간요법에서 발한, 해열, 이뇨, 진통, 위궤양 예방, 담즙산 분비 촉진작용 등에 사용되었다. 본 연구는 복분자와 백출의 메탄올추출물의 지질대사 개선능을 검색하기 위하여 식이의 각각의 0.5%와 5% 첨가군을 대조군과 비교하였다. 복분자와 백출을 80% methanol로 추출한 후 hexane으로 지질을 추출 제거한 메탄올 추출액을 건조시켜 0.5% 콜레스테롤을 첨가한 AIN-93G 식이에 각각 0.5%와 5% 수준으로 첨가시켜 5주령 수컷 생쥐에게 30일 동안 섭취시킨 후 혈장과 간조직의 지질을 측정하였다. 혈장 중성지방의 경우 복분자 5% 첨가군이 백출 0.5% 첨가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 혈장 총콜레스테롤, HDL-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 농도는 군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, 백출 0.5% 첨가군의 HDL-콜레스테롤이 대조군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. 백출 0.5% 첨가군의 HDL-콜레스테롤이 다른 실험군들에 비해서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. LDL-콜레스테롤에서 백출 0.5% 첨가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, 백출첨가군들이 복분자첨가군들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다. 복분자 5% 첨가군의 간 콜레스테롤 농도는 대조군과 백출 5% 첨가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. 복분자 5% 첨가군이 다른 실험군들에 비해서도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. 간 총지질농도와 중성지방의 경우 군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, 복분자 0.5% 첨가군과 5%첨가군의 총지질농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다. 본 연구 결과는 생쥐에서 복분자와 백출의 메탄올 추출물액이 의미있는 지질 개선 효과를 보이지 않음을 나타낸다.